

서양 기호 사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신소쉬르주의적 연구를 위한 서설

윤성노*

【 차 례 】

- I. 들어가기
- II. 고대
- III. 소쉬르와 고대 철학자들의 기호 사상 비교
- IV. 중세 전반부
- V. 중세 후반부
- VI. 비판적 수용
- VII. 과거와의 대화를 통해 어떤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
- VIII. 나가기

국문초록

본고는 서양 고대 및 중세의 주요 기호 사상들을 비교·검토하고 새로운 기호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먼저 이름과 사물에 자연적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크라틸루스의 실재론, 둘의 관계를 해당 언어 공동체에 고유한 관습의 산물로 보는 헤르모게네스의 계약론, 그리고 실재론과 계약론을 선택적으로 취하는 플라톤의 절충주의를 소개하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한다. 다음으로 서양 “의미론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텍스트”로 간주되는 『해석론』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언어를 기호로 정의하는지 소개하며, 또한 증상을 기호의 전형으로 간주하는 스토아학파의 기호 기반 추론 과정을 설명한다. 아울러 중세로 넘어가기에 앞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과 소쉬르의 기호 사상을 비교한다. 중세 초반 사상가로는 보에티우스와 아우구스티누스가 검토대상이다. 특히 사물, 개념, 기호 사이에 존재론적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보에티우

*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스의 “말의 순서”와 아우구스티누스의 소통 중심 언어철학과 내적 발화 이론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아울러 모디스트 문법학자들이 기호, 개념, 사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리고 13세기 중반 어떻게 인식론적 전환이 일어났는지 보여주는 것 또한 필자의 관심사다. 그리고 중세 말에 이르러 논리학과 인식론이 어떻게 밀접하게 연관되는지를 윌리엄 오캄과 존 메이저를 통해서 알아본다. 한편, 합리적 비판을 통해 과거를 수용할 필요성에 따라 언어적 개념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보편주의, 아우구스티누스의 언어철학, 트락스의 8품사, 푸코의 인식론적 시대 구분, 그리고 소쉬르의 기호론에 내재한 문제점들을 다룬 다음에 ‘신소쉬르주의적’ 담화 기호학을 제안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한다.

열쇠어 : 가추법, 유명론, 기호론, 해석, 후기구조주의, 신체화

I. 들어가기

1. 연구 목표

패러다임의 교체 및 지식의 융·복합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이에 따라 혁신과 가치 창조가 시대의 화두로 대두되는 21세기 시대정신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호학탐구방법이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본고는 서구 기호 사상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표를 둔다. 그리고 필자가 이런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이유는 1) 기존의 이론과 경쟁할 수 있는 대안을 설계하고 아직 답이 정해지지 않은 새로운 문제(보통 ‘학문적 블루오션’이라 부르는)에 도전하기보다는 2) (레드오션에서 취득한 ‘파이’를 지키거나 마지막 남은 몇 조각 파이를 차지할 요량으로) 효용성이 입증된(그래서 안정감을 주지만 창의력은 억제하는) ‘잘 팔리는’ 이론 적용에만 몰두하고 3) (나의 답이 여전히 유효한지, 그리고 나에게 답을 제공해주는 그 탐구방법이 위기에 이른 패러다임인지의 여부는 모니터링하지 않은 채)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믿는 질문들만 반복하다 보니 4) 새롭게

제기된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개념 설계 능력(새로운 ‘파이’를 만드는 창의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5)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오늘날 노동환경 변화의 흐름에 맞추어 문제의식과 문제해결방법을 업데이트하지 못하는 데에 소위 ‘인문학의 위기’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이렇게 보면 인문학의 위기가 아니다. 인문학자들의 위기이자 인문학 전환의 위기이다). 그렇다면 우리 기호학은 상황이 어떤가?

2. 문제제기

기호학자들은 보통 역사를 선호하지 않는다. 공시태와 통시태로 구분해 연구대상을 규정하는 것이 연구의 출발점이며, 공시적 관점에서 ‘텍스트’의 구조적 특성을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최근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를 예로 들자면,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는 먼저 단백질분자구조 분석을 통해 그것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과 비슷한 논리다.

특정 이론을 추종하는 걸 문제 삼자는 게 아니다. 역사, 정확히 말하면 하나의 공시태가 다른 공시태로 교체되는 과정이 또 다른 유형의 구조적 현상이며¹⁾, 또한 두 유형의 구조 개념, 즉 관찰대상의 체계적 특성과 관찰도구의 구조주의적 성격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민담, 소설, 일상대화, 제스처, 광고, 모바일게임, 영화, 친족체계, 종교제, 도시 전체 등 이질적인 대상들에서 관찰자가 ‘구조’라는 한 국면만을 보고자 할 때 실제로 대상의 특성과 도구의 성격이 혼동되곤 하는데, 자연과학에서 이는 “관찰자의 역설”로 알려진 현상이다).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도 관찰도구가 관찰대상의 속성을 결정하는지의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구조 연구를 위한 도구로 구조주의를 선택한다고 해서 도구 변천사에 대한 무관심 내지 무지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며,

1) 언어의 역사적 변천이 무작위적이지 않고 특정한 음성법칙에 입각한 패턴화된 변화라는 사실을 밝힌 건 19세기 비교문법학자들이 이론 위대한 업적 중 하나다.

또한 모든 것이 연결되는 4차 산업혁명이 임박한 상황에서 텍스트-바이러스가 발현되는 맥락, 텍스트를 매개로 ‘저자와 독자’가 상호작용하는 양상, 텍스트와 주체 그리고 삶의 형식이 서로에게 적응해 가는 (문화 생태-진화적) 역동성은 배제한 채 여전히 텍스트의 내적 구조에 전착하는 태도가 이제는 시대착오적이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3. 문제해결방법

지성사를 포함한 모든 역사 연구에 불변의 진리가 있다면 만물이 변한다는 것이다. 어제는 명확했던 지식이 오늘은 틀린 것으로 판명날 수 있고 오늘 난공불락의 이론으로 생각되던 것이 내일 그 운명이 어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고전물리학이 상대성이론을 거쳐 양자물리학으로 교체되는 여정을 생각해보라(이는 비판정신 없이 자기합리화에 몰두한 나머지 만물이 변한다는 불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방법론적 부적합성이야말로 진짜 문제임을 보여준다.)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것이 이론의 운명이라고 해서 낙담할 필요는 없다. 과학사가 칼 포퍼²⁾의 표현을 빌리자면, 반박가능성이야말로 과학지식의 유일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역사는 지난 것에 대한 단순한 회상이 아니다. 과거와의 대화를 통해 미래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얻는 것이다.³⁾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은 연구 활동에도 적용된다). 창의력의 원천은 전통이라는 안토니오 가우디나 ‘그냥 모든 것을 연결하는 것’이 창의성이라는 스티브 잡스의 말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를 이야기하거나 지난 것에 대한 가치 평가 없이 혁신을 논하는 건 공허하다.

이에 필자는 기호로 매개되는 행위나 의미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려

2) Popper, K., *Conjectures and Refutations: The Growth of Scientific Knowledge*, Harper and Row, Wokingham, England, 1963.

3) E. H. 카 지음, 김택현 옮김, 『역사란 무엇인가』, 서울: 까치, 1997.

면, 한편으로는 반박가능성을 인정하고 자기합리화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의 교훈(‘변화 속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라’)과 혁신의 아이콘들의 조언(‘새로운 조합이 있을 뿐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란 없다.’)을 되새기면서 가추법(abduction) 기반 가설 검증 절차를 따라 연구를 새롭게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II. 고대

고대 서양 철학자들 중에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학과 등이 기호현상에 대해 논했는데, 특히 플라톤(BC 428-348)은 이름과 사물의 관계를 놓고 크라틸루스와 헤르모게네스 사이에서 벌어진 『크라틸루스』(Cratylus) 논쟁에서 언어 기원에 대해 논함으로써 처음으로 기호론 논쟁에 불을 지핀 인물로 평가받는다.⁴⁾

1. 플라톤

크라틸루스는 적어도 누군가 최초로 사물에 이름을 부여한 순간에는 이름과 사물 사이에 ‘자연적’ 연관성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헤르모게네스(Hermogenes)는 둘의 관계를 이름을 부여한 언어 공동체에 고유한 관습의 산물로 본다. 헤르모게네스의 말을 들어보자⁵⁾:

“소크라테스 선생님, 이 친구 크라틸루스는 이렇게 주장합니다.”있는 것들 각각에는 저마다 올바른 이름이 본래 자연적으로 있다. (...) 이름을 붙이는 올바른 규칙은 본래 있는 것이며, 그것은 그리스 사람이든 이민족 사람

4) Nöth, W., *Handbook of Semiotics*, Indiana University Press, 1995, p. 13; Martinet, J., *Clefs pour la Sémiologie*, Seghers, 1973, pp.7~8.

5) Dirk Geeraerts 지음, 임지룡·김동환 옮김, 『어휘의미론의 연구 방법 -역사의미론에서 인지의미론까지-』, 경북대학교출판부, 2013, 29쪽에 재인용.

이든 누구에게나 똑같다 “라고요. (...) 제가 보기에는 누군가가 어떤 것에 무슨 이름을 붙이든 그것이 올바른 이름인 것 같습니다. 설령 다른 사람이 그 이름을 다시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서, 더 이상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나중 것이 이전 것 못지않게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이에 중재자로 나선 플라톤은 크라틸루스의 실재론과 헤르모게네스의 계약론을 절충해 단어는 사물의 이름(nomenclature)이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으로 의미된 사물과 관련이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 어원이 문화적 풍화작용으로 지워질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한다⁶⁾:

“그리스의 초기 사람들은 요즘에도 많은 이민족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들, 즉 해, 달, 땅, 별, 그리고 하늘만을 믿었던 것으로 보이네. 그들은 그것들이 모두 궤도에서 움직이며 달리는 것을 보고, 달린다(thein)는 이 본성 때문에 그것들을 신들(theous)이라고 불렀던 것 같네. 그리고 나중에 그 밖의 다른 신들을 알게 되자 곧 그들 모두를 이 이름으로 불렀던 것 같네.”

2.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BC 384-322)는 동물이 내는 소리와 의사소통을 위해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음을 구분하고 후자를 중시하며, 서양 “의미론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텍스트”⁷⁾인 『해석론』에서 단어를 다음처럼 규정한다⁸⁾:

“말해진 단어들은 영혼의 영향이나 감동에 대한 상징이나 기호이다. (...) 정신 상태 자체는, 이 단어들이 주로 그에 대한 기호인데, 그러한 상태가 대

6) *ibid.em.*

7) Kretzmann, N. J., Maienborn, C., von Heusinger K., Portner, P.(eds.), *Semantics: An international Handbook of Natural Language Meaning* Volume 1, Walter de Gruyter, 2011, p. 148 재인용.

8) Aristotle, *De Interpretatione*, Leob Classical Library, London, 1938, I.

상물에 대한 표상이거나 외관, 이미지, 복제물인 것처럼, 모든 인류에게 동일한 것이다.”

단어는 심적 경험(영혼의 영향이나 감동)을 표상하는 기호이고 기호는 다시 표상 저 밖에 존재하는 대상을 반영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기호 사상에서 필자는 두 가지에 주목한다. 표현방식(입말voces과 글말scripta)은 언어마다 다르지만 그것이 대신하는 심적 표상(intellectus)은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다는 것이 그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 대상(res), 심적 표상, 언어기호 사이의 관계(기호학자들이 세미오시스라 부르는)에 대한 사유가 이후 서양에서 전개된 거의 모든 의미론 논쟁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이다(참고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연하게’ 단어를 심적 개념에 대한 기호로 명명했다고 한다⁹⁾).

3. 스토아학파

BC 300년경 자연계에 존재하는 자연적 기호와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사람들이 고안한 규약적 기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놓고 스토아학파가 에피쿠로스학파와 벌인 논쟁 또한 기호학 역사를 검토할 때 언급할 만하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사용되어 유명해진 “카르페 디엠”(carpe diem: ‘현재에 충실하라’는 뜻의 라틴어 표현)을 모토로 삼은 에피쿠로스학파의 반대 진영에서 ‘삶의 목적은 행복에 있고 행복은 자연과 합치해 사는 것’임을 설파한 스토아학파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병을 알려주는 증상 같은 자연적 기호를 세미오시스의 전형으로 간주하고, 의미(문장에 표상된 명제내용)가 미지의 대상(영혼의 상태, 사물의 질서, 로고스 등)이 자신을 드러내는 내포(implication) 과정에서 ‘선행사’(antecedent)처럼 기능하는 것으로 이해한다(이런 자연주의적 언어관

9) Magee, J., *On signification and mind*, Leiden: Brill, 1989, p. 8.

에는 모든 동물에 공통적인 감각적 표상과 이성적 동물에 고유한 이성적 표상을 구분하고 영혼의 통제센터인 이성적 표상, 즉 사유능력으로부터 말이 시작된다¹⁰⁾는 스토아학파의 창시자 제논(Zenon of Citium)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기호학의 어원은 표식이나 전조(presage) 등을 뜻하는 그리스어 σημεῖον(sêmeion, semeia[복수형])에서 유래하는데, 기호로 매개된 의미현상(세미오시스)이 본질적으로 표식 내지 전조 현상이라는 가설을 토대로 스토아학파는 표상의 관점에서 진리의 문제를 다루고, 표상의 외적 표현 수단인 언어가 명제 이외의 다른 어떤 것을 드러내는 추론 과정을 철학적 성찰의 중심에 놓는다.

사실 언어기호는 부지불식간에 화자의 마음상태를 드러내기도 한다. 이는 공시(connotation)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의미현상으로, 바르트¹¹⁾는 현대 뿌띠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를 해체하는 데 공시 기호학을 활용한 바 있다. 또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 말하는가 하면, 의도에 반해 말이 헛나오기도 하고, 성과 관련된 농담을 즐기기도 한다. 프로이트가 말실수, 농담 등을 연구한 것도 결국은 언어가 의식의 검열을 피해 무의식이 표출되는 통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스토아학파의 용어를 사용하자면, 언어는 억압된 무의식의 존재를 알리는 증상이나 선행사처럼 기능하는 것이다. 한편, 기호 연구의 어원을 따라 세미오시스의 본질을 증상(자연적 기호)에서 찾는 스토아학파의 기호 사상은 니체가, 인간 내면의 자연성(무의식, 욕망, 본능 등)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라고 믿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금욕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권력에로의 의지’로 대변되며 스토아학파가 자연성이라 부르는) ‘비도덕’이면서 정신-생물학적 존재방식을 거부하는 그리스도교적 금욕주의를 두고 “종교적 신경증”을 드러내는 증상이라고 비난하는 이유를 일견 설명해준다.¹²⁾

10) Diogenes Laertios, *Vitae philosophorum*, VII, 159.

11) Barthes, R., *Mythologies*, Seuil, 1957.

중세 시대로 넘어가기에 앞서 필자는 소쉬르의 기호론과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기호 사상들을 비교하는 것이 전체적인 논의 전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Ⅲ. 소쉬르와 고대 철학자들의 기호 사상 비교

1. 기호론

필자는 언어기호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소쉬르가 제시하는 공시성, 체계성, 변별성, 이원성, 자의성 등을 중심으로 그의 기호 사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1) 공시성

소쉬르는 체스게임 은유를 도입함으로써 언어를 구성하는 구조적 최소 단위들의 체계적 성격을 설명한다.¹²⁾ 가령 나이트를 체스판에서 떼어내 그 물리적 성질을 분석하거나 재료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조사하는 것은 도구 제작자나 역사연구자에게는 흥미로운 연구주제임에 틀림없지만, 놀이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체스놀이를 하려면 체스판에서 가령 나이트가 지닌 ‘가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12) “니체에 의하면 그리스도교는 (...) 고통을 죄에 대한 벌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이로부터 터의 해방을 내세워 전가하는 방식으로 통해 끊임없는 신경증 환자를 양산할 뿐이다. 내적 자연성의 억압으로 인해 끊임없이 계속되는 삶의 불만족과 증오 그리고 실현될 수 없는 해방 사이에서의 긴장은 종교적 신경증을 유발하는 근본문제이다. 여기서 니체의 표현”종교적 신경증 “은 결코 해소될 수 없는 삶의 고통에 대한 심리적 긴장과 불안, 좌절에 대한 증상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다.”(이상범, 「니체의 섭생에 대한 연구-영양(혹은 영양섭취)의 사상적 의미에 대한 고찰」, 『범한철학』 83집, 범한철학회, 2016 겨울호, 82~83쪽.)

13) Saussure F. de,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Ballt C., Sechhay, in coll with Riedlinger (Baskin W. [tran.], The Philosophical Library, Inc, New York, 1959(1916), pp.153~4.

가치를 확인하려면 놀이규칙을 알아야 한다. 언어도 마찬가지다. ‘언어 게임’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역사적 변천 과정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건 소용없는 짓이다. 언어를 “모든 부분(기호)들이 공시적으로 상호의존적인 하나의 체계”¹⁴⁾로 간주하고 기호체계로서 언어(랑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공시 언어학이 필요하다.

2) 체계성

공시 언어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모든 인간 언어의 존재 조건과 보편적 속성들을 밝히는 것이 목적인 일반 언어학, 일반 언어학 지식을 활용해서 개별 언어를 분석하는 기술 언어학(descriptive linguistics), 그리고 서로 다른 언어들 또는 동일한 어족(language family)에 속한 자매어들의 차이와 공통점을 연구하는 비교 언어학(contrastive linguistics)이다. 하지만 어떤 유형의 언어학이든 공시성을 중심에 두는 언어학이라면 언어로 게임을 할 때 필요한 규칙을 기술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인간의 삶 속에서 기호의 삶을 연구’하는 과학(기호론)이 필요하다.¹⁵⁾ ‘기호들을 지배하는 법칙들’부터 살펴보자.

3) 변별성

모국어 습득 이전의 유아에게 세상은 다만 “무정형의 분명하지 못한 덩어리”일 뿐이며, 소리와 관념이라는 두 무정형의 덩어리(“실질”)에 “형식”을 부여하는 게 언어라고 소쉬르는 말한다. 게다가 그 어떤 개인도

14) *ibid.*, p.124.

15) “사회 안에서 기호들의 삶을 연구하는 학문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사회심리학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일반 심리학의 일부가 될 것이다; 나는 그것을 기호론이라 부르고자 한다. 기호론은 기호들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들을 지배하는 법칙들은 무엇인지 보여줄 것이다.”(*ibid.*, p.16.) 1세대 기호학 연구자는 기호학이 무엇이며 또 무엇이여야 하는지 (타자와 자신에게) 설명함으로써 학문적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역량을 모았다면, 지식의 융복합의 시대에는 (여타 사회과학이론들과 비교해서) 어떤 쓸모가 있고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졌다.

완벽한 언어를 갖지 못하며 집단의 차원에서만 언어의 존재는 완벽하다. 그가 사회적 제도로서의 언어(랑그)에 방법론적 우선권을 부여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리고 랑그 차원에서 “공시적으로 상호의존적인” 단위들 사이에 관계를 만들 때 필요한 구조적 원리로 그는 통합체(잇달아 이어지는 둘 이상의 단위로 구성된 집합)와 연합체(대체 가능한 단위들의 집합)를 제시한다.¹⁶⁾ 언어를 구조화하는 두 유형의 관계 맺기가 중요한 이유는, 소쉬르가 말하듯, ‘언어에는 차이만 존재하고’ 차이들의 망으로부터 단위들의 변별적 가치가 생성되기 때문이다. 차이, 가치, 변별성은 결국 랑그의 체계성이라는 동일한 현상을 상이한 관점에서 묘사하는 용어들이다.

“일반 심리학의 일부”인 기호론과의 공조 속에서 언어 연구를 진행할 때 풀어야할 또 다른 문제는 기호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이다(소쉬르가 일반 심리학이라 명명한 학문을 오늘날 연구자들은 인지과학이라 부를 것이다).

4) 이원성

프랑스어 단어 “arbre”를 예로 들자면, 기표(/arbr/)와 기의(‘나무’)의 복합체가 기호다.¹⁷⁾ 음 연속체(청각 영상) /arbr/가 환기하는 건 개별자, 가령 내가 작년 식목일에 뒷산에 심은 감나무가 아니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는 모든 나무들을 ‘나무’라는 하나의 범주로 포섭시켜주는

16) “언어 단위는 건물의 단일한 부분에, 예를 들어 기둥 같은 것에 비교될 수 있다. 기둥은 그것이 받치고 있는 추녀와 특정한 방식으로 관계된다. 공간 안에 공존하는 두 단위를 포함하는 이러한 경향은 통합 관계에 비교될 수 있다. 다른 한편, 이 기둥이 도리아식이라면, 이것은 머리 속에서 다른 건축 양식(이오니아식, 코린트식 등)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 상황에서 공간적으로 공존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계는 연합적이다.”(*ibid.*, p.62.)

17) “(언어기호는) 개념과 청각 영상의 연결이다. 청각 영상은 실제 소리가 아니다. 소리는 물리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 청각 영상은, 단지 그것이 우리의 지각의 결과에 대한 표상이라는 점에서만 ‘실체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각 영상은 언어 기호에서 그것과 결합된 다른 요소와 구별될 수 있다. 이 요소는 일반적으로 더 추상적인 종류인데, 개념이다.”(*ibid.*, p.98.)

나무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개념)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개념과 청각영상이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소쉬르가 소통회로라 부르는 것을 따라) 화자는 개념을 청각영상으로 부호화(encoding)하고 청자는 음성신호로부터 상응하는 개념을 해독(decoding)하는 심적 과정이야말로 언어기호의 본질이다(참고로, 개념을 음성신호로 코드화하고 신호로부터 개념을 추출하는 의식의 흐름이 내포된 소쉬르의 기호 ‘형식’을 범주적 사고와 직관을 매개하는 칸트의 ‘선험적 도식’ 작용과 비교하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5) 자의성

소쉬르하면 으레 자의성을 떠올리는데, 언어학에 문외한이라면 그것을 ‘화자 마음대로’와 동의어로 간주하고 인문학 훈련을 받은 자는 ‘관습적’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것이다.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무연성, 규약성, 비의지성, 익명성, 초월성 등이 내포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자의성은 우선 청각영상(/arbr/)과 그것이 표상하는 개념(‘나무’)의 관계(의미작용signification)가 동기화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다(무연성).¹⁸⁾ 무연적(non-motivated) 성격의 의미작용이 바로 나무에 대해 사람들이 품고 있는 관념의 토대이다. 그래서 관념은 자연의 산물이 아니라 문화가 만들어낸 인공물이다(실재론자들은 사랑, 정의, 도덕률 같은 관념들이 물이나 공기처럼 자연계에 존재한다고 믿는다). 기표와 기의가 연결되는 유일한 근거는 일종의 사회적 계약이며 기호는 합의된 규칙들에 의해서만 지배받는다(규약성). 그렇다고 규약성을 해당 언어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선 안 된다. 공동체의 통제를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언어는 비관습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화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할 때 언어가 이미 정해놓은 경우의 수에

18) Saussure, F. de,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édition critique par Tullio de Mauro], Payot, 1972, p.104.

의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언어기호는 사용자의 의지에 좌우되지도 않는다(비의지성). 소쉬르의 표현을 빌리자면, “선택될 수 있는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의명성).” 그래서 기호(체계)의 자의성에는 언어가 개인과 집단 모두를 넘어선다는 초월성도 포함돼 있다.

2. 고대와 현대 기호 사상의 차이점

“있는 것들 각각에는 저마다 올바른 이름이 본래 자연적으로 있고 (...) 이름을 붙이는 올바른 규칙은 그리스 사람이든 이민족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똑같다”고 주장하는 크라틸루스나 단어가 사물에 다는 이름표이고 이름표가 달린 대상의 속성이 단어의 의미라고 생각하는 플라톤의 입장에 소쉬르는 반대할 것이다. 기호와 기호로 지시된 사물은 구분해야 하고, 기호현상은 본질상 심리 현상, 즉 화자는 의식 속에서 특정 코드를 기반으로 개념과 청각 영상을 언어기호로 통합(부호화)하고 청자는 수신된 신호를 뇌로 보내 영상 처리하고 상응하는 개념을 추출하는 것(해독)이며, 따라서 명명하는 행위를 사물에 이름표를 다는 것으로 환원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편, “설령 다른 사람이 그 이름을 다시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서, 더 이상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나중 것이 이전 것 못지않게 올바르다”라고 주장하는 헤르모게네스의 견해에 소쉬르가 대체로 동의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마음대로 기호 사용 규칙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전자와 달리, 후자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집단 역시 개인과 마찬가지로 언어에 구속된다고 믿는다.

아울러 단어가 인류 공통의 보편적 정신 상태를 표상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나 증상을 전형적인 기호현상으로 간주하는 스토아학파의 입장도 그는 거리를 둘 것이다. 기호의 본질을 파악하려면 ‘인간의 사회적

삶 속에서 (규약적) 기호의 삶을 연구'해야 하고, 기표와 기의를 조직하는 원리가 해당 언어공동체 내에서만 유효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의식 저 너머 자연계 어딘가에 보편적 개념이 실존하며 사물이 개념에 우선한다고 믿는 실재론자라면, 소쉬르는 랑그의 구조적 조직 원리에 따라 세상이 자의적으로 분절되므로 언어 발생 이전에 관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유명론자다.

IV. 중세 전반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기호 사상을 중세 인들에게 전수한 인물은 아우구스티누스(Sanctus Aurelius Augustinus: 354-430)와 보에티우스(Anicius Manlius Severinus Boethius: 480-524 or 525)다. 보에티우스가 번역하고 주석을 단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Organon*)의 일부 중 특히 *De Interpretatione*(*Peri Hermeneias*)은 오랫동안 중세 인들이 아리스토텔레스 사상과 그에 대한 네오-플라톤적 해설에 접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으며, 고대와 중세 기호 사상의 가교 역할을 한 아우구스티누스는 기호학사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한 사상가로 평가받는다.

1. 아우구스티누스

아우구스티누스는 스토아학파의 자연주의적 언어철학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다음 화자가 발음했을 때 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대신하는 기호로 단어를 규정한다.¹⁹⁾ 스토아학파가 자연적 기호를 중시했다면 그는 사회적 약속을 토대로 작동하는 소통기능을 기호현상의 핵심으로 본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또 화자와 청자에 따라 기호를 유형별

19) Augustine, *De dialectica* (Jan Pinborg[ed.], translation with introd. and notes by B. Darrel Jackson), Dordrecht: Reidel, 1975; Augustine, *De doctrina christiana* in Sancti Augustini Opera (Green W. M.[ed.], CSEL 80, Vienna, 1963, I.1, 9; II.3, 34.

로 구분한다.

화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연적 기호와 규약적 기호로 나뉜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시대부터 익히 알려진 이분법으로, 전자는 불의 위치를 드러내는 연기처럼 소통의도 없이 기호(연기) 이외의 다른 어떤 것(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후자는 생명체들이 감정이나 생각을 알리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교환하는 어떤 것이다. 인간 이외의 다른 생명체들도 명확한 소통의도를 가지고 기호를 사용하는지 밝히는 건 오늘날 동물 의사소통연구자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데, 소통수단으로서 수화, 플라스틱판, 여키스어(컴퓨터 스크린에 연결된 키보드) 등을 배운 침팬지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실험결과들을 보면 그럴 개연성이 높다.

가령 라나는 키보드를 눌러 먹을 걸 요청했고, 와쇼는 배운지 5년 만에 130개 이상의 미국 수어(Sign Language) 단어로 소통했으며, 칸지는 그림문자가 기입된 500개 이상의 판을 이용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었다. 심지어 칸지의 동료 판바니샤는 (실제로는 뱀이 없었지만) 주변에 뱀이 있음을 알리는 거짓신호를 보내 칸지를 놀래키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다. 동물의사소통 연구에 있어 기만이 중요한 이유는 거짓말한다는 건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증거이고(이런 능력을 “마음이론”이라 부른다), 마음이론이 있으면 언어 진화의 전제조건인 공감능력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영장류 연구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고토대 마쓰자와 교수는 침팬지들이 이타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서로에게 무관심한 이유가 현저히 떨어지는 공감능력 탓이라고 말하며,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진화인류학 연구원 토마셀로는 그들이 서로에게 무관심하게 때문에 (화자와 청자의 상호작용이 핵심이며 서로의 관심을 조율하는 장치인) 언어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청자의 관점에서 보면 메시지가 수용되는 감각기관에 따라 기호를 하위 구분할 수 있다. 어떤 기호는 시각적이고, 다른 것은 청각기관과 연결된다. 향수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글(점자)은 의미 전달매체의 토대

가 촉각이나 후각인 기호들이다.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얼굴표정, 제스처, 태도, 상대방과의 거리 같은 운동학 및 근접학적 요소 또한 성공적인 소통을 위해 중요하다(미래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한 인공지능의 성패는 상이한 감각정보들이 ‘몸’에서 일관된 메시지로 통합되는 절차를 알고리즘으로 수식화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어쨌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다양한 기호들 가운데에서도 단어(verbum)가 독보적인 위상을 지닌다고 생각한다. 양이 많아서가 아니다. 다른 모든 비언어 기호들로 매개된 메시지는 단어로 재해석될 수 있 수 있지만 그 역은 참이 아니라는 뜻에서 그렇다.²⁰⁾ 그가 입말의 규약성을 철학적 성찰의 대상으로 삼는 이유다. 로트만²¹⁾이 기호체계를 크게 1차 모델링 시스템(모국어)과 2차 모델링 시스템으로 유형 분류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이다(여기서 말하는 단어는 입말이며 글말은 단지 입말을 표상하는 2차 모델링 시스템일 따름이다).

입말과 글말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논리의 연장선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입말 (혹은 외적 기호)보다는 심적 단어(verbum mentis)를 중시한다. 바야흐로 내적 발화(internal enunciation)를 연구하는 의미론이 일반 기호학의 핵심으로 부상한 것이다. 그런데 심적 단어는 언어학적 실체가 아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언어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심적 기호(개념)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다고 말할 때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식) 보편적 표상주의자이지만, 외적 기호(입말)의 규약적 성격을 사유의 중심에 놓을 때는 (소쉬르 식) 문화상대주의자다(뒤에 다시 다루겠지만, 보편주의와 상대주의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에 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보편적 견지에서 내적 기호를 중시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은 현대 언어학 및 심리학 분야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예컨대,

20) Augustine, *De doctrina christiana*, II.7, 35.

21) Lotman, Y. M., 유재천 역, 『문화 기호학』, 문예출판사, 1998.

비고스키(L. S. Vygostky)는 인간이 생각할 때 사용하는 내적 언어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사용하는 외적 언어를 구분한 다음 언어가 본질적으로는 내적 언어라고 생각하고, 촘스키²²⁾ 역시 내면의 자아에게 말을 건네기 위해 처음 언어가 발생했으며 내적 언어에서 외적 언어가 유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보에티우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의미론에 대한 보에티우스의 해석에 따르면, 의미란 곧 이해다. 사물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세상을 이해한다는 것이고, 세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지시 맥락을 설정(reference-setting)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뜻이 의미로 다가오는 게 아니다. 명명행위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역사적) 맥락이 의미를 결정한다(맥락이 의미를 결정한다는 주장은 후기 비트겐슈타인이 전개하는 “언어게임”의 핵심 테제임을 기억하자).

보에티우스가 중세 철학적 의미론 발전에 기여한 또 다른 몫은 그가 “말의 순서”(ordo orandi)에 입각해서 대상, 표상, 기호(언어)에 존재론적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사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개념도 없고 개념이 없으면 언어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하지만 말의 우선순위가 시대마다 그리고 학자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의미론을 구성하는 세 요소(사물, 개념, 단어)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는 사실 고대부터 현대 서양 철학에 이르기까지 쟁점으로 남아 있다.

논의를 현대에 국한하자면, 오그든과 리차드²³⁾는 상징은 개념을 표상(reference)하고 심적 표상을 통해 대상(referent)과 연결된다는 생각을 그

22) Chomsky, N., *The Essential Chomsky* (edited by Armove A.), New York: New Press, 2008.

23) Ogden, C. K. and Richards, I. A., *The Meaning of Meaning: A Study of the Influence of Language upon Thought and of the Science of Symbolism*, Magdalene College, University of Cambridge, 1923, pp.9~12.

유명한 “기호학적 삼각형”으로 설명함으로써 사물, 단어, 개념의 순서를 재정립한 바 있다. 또한 언어 이전의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무정형의 분명하지 못한 경험 덩어리(실질)”일 뿐이며 언어의 개입으로 실질이 (청각영상과 개념의 차원에서) 형식으로 분절된다는 소쉬르의 주장에는 사물에 대한 기호의 인식론적 우월성이 내포되어 있으며, 소쉬르의 이런 유명론적 입장을 극단으로 몰고 가면 오늘날 우리는 미디어 같은 표상의 도구가 현실을 과잉현실로 대체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 보드리야르²⁴⁾와 조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말의 순서에 대한 가장 정교한 이론을 전개한 사상가로는 푸코²⁵⁾와 라캉²⁶⁾을 꼽을 수 있을 텐데, 실제 (*Réel*: 사물의 질서), 상징계(*Symbolique*: ‘아버지’로 대표되는 이상화된 초자아로서의 랑그), 상상계(*Imaginaire*: 쾌락의 원리와 현실의 원리 사이에서 진자 운동하는 영혼의 상태)가 서로 복잡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방식을 토대로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보는 정신분석학과 지식-권력과의 관계 속에서 “담론의 질서”를 고발하고 내재성(담론의 구조)과 외재성(담론 외부에서 담론의 구조를 결정하는 조건들)의 경계에서 주체화(subjectivation) 과정을 사유하는 “지식의 고고학”은 맥락이 기호의 의미를 결정하며 존재론적으로 사물은 개념에, 개념은 기호에 앞선다는 보에티우스의 생각이 얼마나 순진한 발상인지를 잘 보여준다(의미가 기호체계 안쪽에 정박해 있다고 주장하는 내재적 구조주의 역시 순진한 발상이기에는 매한가지다).

24) Baudrillard, J., *Simulacres et simulation*, Galilée, 1981.

25) Foucault, M., *L'Ordre du discours*, Gallimard, 1971; Foucault, M., *Les Mots et les Choses. Une archéologie des sciences humaines*, Gallimard, 1966.

26) Lacan, J., *Écrits*, Seuil, 1966.

V. 중세 후반부

1. 모디스트 문법 연구

언술 부분들(parts of speech)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분석은 트락스(Dionysus Thrax: BC 170-90)가 어휘를 여덟 개의 범주(명사, 동사, 분사, 관사, 대명사, 전치사, 부사, 접속사)로 분류하는 데 영감을 주었으며, 중세 시대에는 논리학, 수사학과 함께 “세 학문”(Trivium)을 이루던 전통문법으로 계승되어 오늘날 품사라는 용어로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 세 학문의 전통 속에서 당시 문법학자들은 문법 연구를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 부합하는 학문으로 만들려 했다.

예컨대, 12세기 가장 유명한 학자 중 한 명인 아벨라드(Peter Abelard: 1079-1142)는 언어적 의미 현상이 논리학의 영역이라고 주장하고,²⁷⁾ 13세기 후반 파리 대학을 중심으로 시작된 모디스트(modist) 문법학자들은, 개념과 사물, ‘언어와 실체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²⁸⁾는 가정 하에, 우리가 단어를 통해 어떤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이 의미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것이 소리 자체에 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유사성을 근간으로 하는 스콜라 철학 전통의 모디스트 문법학자들은 개별 언어들을 초월하는 인류 공통의 보편 문법이 존재한다고 믿었으며, 이런 믿음은 17세기 파리 포르-로와이알(Port-Royal) 학파의 보편문법을 거쳐 20세기 후반 언어학 혁명을 일으킨 촘스키의 변형생성문법으로 이어진다.

2. 인식론적 전환

언어와 실체의 구조적 유사성 속에서 개념을 이해하는 시각(아리스토텔레스, 보에티우스, 모디스트 문법 학파 등)과 함께 (유사성과는 다른

27) Abelard, P., *Dialectica*(de Rijk, L. M.[ed.]), Assen: Van Gorcum, 1956, p.111.

28) Nöth, W, *ibid.*, p.19.

방식으로) 개념이 사물을 대신하는 기호로 간주되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13세기 중반은 기호학사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개념이 사물로부터 자유로워짐에 따라 사물이 없으면 개념도 없다는 보에티우스의 말의 순서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이어지고(말의 순서의 문제점은 앞서 설명한 바 있다), 사유 과정이 심적 언어로 이해되는 토대가 마련되고 개념화가 논리학의 주된 관심사가 되면서 원래 인식론적 맥락에서 제기되던 표상의 문제가 이제는 논리학자들에게도 중요해진다.

이런 과도기에 당시 기호현상에 대해 가장 광범위한 글²⁹⁾을 남긴 베이컨(Roger Bacon: 1214-1294)은 “리버럴 아트”(Liberal Arts)³⁰⁾의 주요 수단으로 기호의 위상을 높이고, 14세기 초반 의미를 중심에 놓는 “심리주의 논리학”(mentalist logics)을 전개한 오캄(William of Ockham: 1285-1349)은 사적 기호(자신과의 소통을 위한 내적 언어)와 공적 기호(타자와의 소통을 위한 외적 발화)를 구분하고 전자를 논리학이 다루어야 할 주요 의제로 상정한다.

3. 의미, 표상, 매체

중세 말기는 논리학과 인식론이 더욱 밀접하게 연관되는 시기이다. 대표적인 후기 스콜라 철학자인 메이저(John Major: 1469-1547)³¹⁾에 의하면, 의미한다는 것은 누군가로 하여금 어떤 것을 알게 하는 행위이며, 표

29) Bacon, R., *On Signs, Translated with Introduction and Notes*(Maloney, T. S.[eds.]), *Mediaeval Sources in Translation*, No. 54, Toronto: Pontifical Institute of Mediaeval Studies, 2013(1267); Bacon, R., *Compendium of the Study of Theology: Edition and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Notes*(Maloney, T. S.[eds.]), *Studien und Texte zur Geistesgeschichte des Mittelalters*, No. 20, Leiden: E.J. Brill, 1988(1292).

30) 리버럴 아트는 문법, 논리학, 수사학, 산학, 기하학, 지리학, 음악, 천문학 등 실용적 기술교육과 구별되며 ‘자유 시민’이 갖추어야 했던 ‘교양’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가 살아 있다면 기술공학(실용적 기술교육)과 인문학적 상상력(자유민을 위한 교양교육)의 융합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라고 조언할 것이다.

31) Major, J., *Libri quos in artibus in collegio Montis Acuti Parisius regentando compilavit*, Paris 1506.

상의 목적은 인식의 대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있다.³²⁾ 오캄이 명제의 맥락에서 기호가 수행하는 의미론적 기능, 특히 전제(supposition)에 주목해 의미현상에 접근한다면, 메이저는 기호현상과 인지활동의 화용론적, 인식론적 연관성에서 의미의 본질을 찾는 것이다(참고로, 인지활동을 참조해서 의미현상에 접근하는 전통은 오늘날 인지문법 내지 인지언어학³³⁾의 문제의식과도 일맥상통한다).

여기서 필자가 주목하는 건 오캄이나 메이저가 내놓는 기호 정의가 고전적 정의(자신 이외의 다른 어떤 것을 대신하는 어떤 것)와는 다르다는 사실이다. 13세기 중반에 일어난 패러다임의 전환 이후 실제로 기호현상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이 통용되고 있었으며, 확장된 기호 모델을 기반으로 특히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초까지 학자들은 자연적 기호 vs 규약적 기호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기호다’를 모토로 삼아 두 극단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형의 의미와 표상에 대해 논한다.

글말보다 입말을 중시하는 아우구스티누스와 달리, 문자의 기능이 더 이상 입말에 종속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 또한 환기할 만하다. 음성기호로 표상되든 시각기호로 묘사되든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동일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런데 두 기호체계가 인지체계에 주는 (인식론적, 존재론적) 영향력이 동일하다는 생각은 문자의 해방을 역설하는 해체주의 기획 의도를 상기시킨다. 실제로 데리다는 소쉬르가 언어 분석 시 입말을 특권화하는 반면에 문자를 입말의 보조 수단으로 격하시킬 때 언어가 사물의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는 힘을 가졌다는 로고스 중심주의

32) “스콜라철학의 중심 문제는, 계시나 신성한 문서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적절한 추론 방법에 의존함으로써 인간의 이성으로 계시된 도그마가 필연적 진리임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루트비히 폰 미제스 지음, 박종운 옮김, 『과학이론과 역사학』, 서울: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5(1957), 58쪽.)

33) Ronald W. Langacker 지음, 나익주 옮김, 『개념, 영상, 상징』, 도서출판 박이정, 2002; Evans N., Green M. 지음, 임지룡, 김동환 옮김, 『인지언어학 기초』, 한국문화사, 2008; 임지룡, 『의미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한국문화사, 2008.

(logoscentrism)에 빠져있다고 비판하고, 해체주의의 핵심 개념인 차연(différance)³⁴⁾을 고안함으로써 직접적으로 경험되는 것 vs 간접적으로 매개하는 것, 본질적인 것 vs 비본질적인 것, 순수한 것 vs ‘오염’시키는 것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한다. 한편, 그리고 메시지와 (메시지가 구현되는) 매체가 별개라는 생각을 두고 오늘날 유럽 대륙 기호학자들은 하나의 의미 형식이 둘 이상의 실질로 구현될 수 있다고 말할 것이다(가령 ‘정지’라는 메시지는 입말, 글말, 수어sign language, 교통신호체계 등 다양한 매체로 구현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고대 및 중세 서양사를 통해 기호 사상들을 검토해보았다. 하지만 지난날의 것들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 합리적 비판은 필수적이다. 비판 없는 학문은 과학을 빙자한 유사종교에 가깝다는 생각에 따라 필자는 언어적 개념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보편주의, 아우구스티누스의 소통 중심 언어철학, 트락스의 8품사, 에피스테메 기반 푸코의 시대 구분, 그리고 소쉬르 기호론의 문제점들을 다루고자 한다.

VI. 비판적 수용

1. 형태와 마찬가지로 개념도 언어공동체마다 다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단어를 심적 경험에 대한 기호라고 규정할 때 심적 경험을 단어의 의미(개념)와 동일시한 것이라면, (음성 형태는 언어마다

34) ‘다르다’와 ‘연기하다’를 뜻하는 프랑스어 동사 “différer”에서 파생된 신조어로, 모든 기호는 다른 기호들과 공간적으로는 차이 나게 하고 시간적으로 지연시키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상호 텍스트성으로 각인되어 있음을 내포한다(Derrida J., *L'Écriture et la différence*, Seuil, 1967; Derrida, J., *De la grammatologie*, Les Éditions de Minuit., 1967). 그런데 서두에서 언급했듯 스티브 잡스는 ‘그냥 모든 것을 연결하는 것’이 창의성이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공시적 차이(현재)를 통시적 지연(과거와 미래)과 연결함으로써 해체주의라는 이름으로 범시적panchronic 성격의 학문적 블루오션을 개척한 것을 데리다의 창의성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

다르다 하더라도) 개념은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다는 그의 주장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역사언어학의 예를 들어보자.

라틴어 속어가 프랑스어로 진화하면서 “casa”(‘집’)는 “chez”(‘~집에’)로 변했다. 품사와 뜻이 모두 변한 것이다. 또한 영어 단어 “mutton”의 어원은 프랑스어 단어 “mouton”에서 찾을 수 있다. 1066년 노르만인들이 영국을 정복한 후 영국에서는 백년전쟁이 한창이던 14세기 후반까지 영어와 프랑스어가 다이글로시아(diglossia) 상태에 놓여있었는데, 당시 고급언어로 인식되던 프랑스어 단어 mouton이 차용되어 오늘날 mutton으로 변한 것이다. 그런데 mouton은 살아 있는 양과 양고기 모두를 지칭하고, mutton은 양고기만을 뜻한다(살아 있는 양은 “sheep”이다).

요지는 단어의 형태와 개념은 서로 무관한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형태가 다르면 그에 따라 개념도 변한다는 것이다(기표와 기의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묶여 있다는 것은 소쉬르 기호 사상의 핵심이다). 따라서 언어기호의 본질(청각영상과 개념의 불가분성)은 무시한 채 (프랑스어와 영어의 경우 mouton과 mutton으로) 청각영상은 다르지만 개념은 프랑스인이나 미국인에게 똑같다는 생각이야말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범한 근본적 오류다.

2. 소통이 언어의 전부는 아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기호 사상을 하나의 일관된 체계로 보기는 어렵다. 가령 외적 단어 없이 내적 단어로 영혼의 상태를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그의 내적 발화 이론은 역설이다. 그리고 내적 단어가 진정한 ‘단어’라 주장하고 내적 언어를 철학적 성찰의 중심에 놓으면서 동시에 의사소통을 언어의 핵심으로 간주하는 것 또한 모순적이다. 소통이 언어의 핵심이라고 보는 기능주의적 언어관에도 문제가 있다.

언어는 물론 소통을 위한 수단이다. 그렇다고 메시지 송수신 과정이

소통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사람들은 가령 점심 때 먹은 것을 장황하게 이야기하거나 장시간 수다를 떨기도 한다. 언어 기능을 여섯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는 야콥슨³⁵⁾의 일반 소통 도식에 따르면, 이런 언어 사용 양상은 교감(conative) 기능에 상응한다. 침팬지가 다른 개체의 털을 관리해 줌으로써 집단의 결속력을 다지는 것과 유사한 논리이다. 이런 맥락에서 동물학자들은 언어를 “털 손질 말하기”(grooming talking)라고 부른다. 핑커와 블룸³⁶⁾ 같은 언어학자들 역시 짝짓기 상대를 유혹하기 위해 인류의 화석조상들이 그루밍의 대체 수단으로 수다를 떨 수 있는 언어능력을 개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엄숙하고도 금욕주의적인 신학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중세 기호 사상이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저작거리 세인들이 수다를 떨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이 언어를 고안했다는 발상은 신성모독에 가까웠을 것이다).

3. 인식의 변화는 문예부흥 이전에 있었다

『말과 사물』에서 푸코는 에피스테메³⁷⁾ 분석을 통해 중세 이후 서구의 역사를 르네상스, 고전주의, 근대로 나눈다. 르네상스는 ‘유사성’의 에피

35) Jakobson, R., “Closing Statements: Linguistics and Poetics” In Thomas A. Sebeok(ed.), *Style In Language*, Cambridge Massachusetts: MIT Press, 1960.

36) Pinker, S., Bloom, P., “Natural Language and Natural Selection”,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13, 1990.

37) “인문사회과학자들은 보통 특정 시기의 현상(사건, 제도, 사상 등)을 독자적인 분석 대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지만, 인식론자로서 푸코는 현상을 가능하게 해주는 역사적이면서 동시에 선험적인 지식의 심층구조를 드러내고자 한다. 이 숨겨진 지식의 총체를 그는 에피스테메라 부르며, 에피스테메를 특정 담론이 형성되고 변화하는 과정이 기록되며 우리가 “말과 사물”의 관계를 이해하고 전자를 통해 후자를 표상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일종의 고문서처럼 규정한다. 그리고 이 숨겨진 문서를 발굴하는 일반 학문이 바로 “지식의 고고학”이다. 푸코에게 이런 유형의 학문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현상을 이해하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며 타자와 관계를 맺는 방식 등을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에피스테메이며, 따라서 근원적인 관념 혹은 아주 개인적인 감정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실제로는 에피스테메의 인식론적 구성물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윤성노, 「굿판의 의미 생성 및 주술치료에 대한 기호-인식론적 소고」, 『인문논총』 67, 서울대학교, 2012, 136~137쪽.)

스테메를 근거로 말과 사물의 관계가 형성되는 시기이고, 고전주의(16세기 초~) 시대에는 동일성과 차이를 근거로 사물을 ‘표상’으로 이해하는 이성이 인식의 중심에 놓인다. 그리고 근대(18세기 말~)에 들어서는 생명(진화론), 노동(사회운동), 랑그(언어학) 등 개별 표상(개체, 자본, 빠를)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표상 외부에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객관적 ‘실체들’이 인식론적으로 두드러진다. 필자가 문제시하는 건 이런 시기 구분을 토대로 그가 16세기를 전후로 사물과 개념의 유사성에서 개념 표상으로 에피스테메의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본다는 사실이다.

앞서 설명했듯, ‘말과 사물’의 구조적 유사성에서 표상의 독자성으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개념이 사물의 질서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한 건 13세기 중반이며, 중세의 종말과 함께 도래한 문예부흥 운동이 서유럽에 전파되면서 16세기 초 쇠퇴하기 시작한 건 스콜라 학파의 사상이다. 그리고 그 학파가 세를 잃은 것을 두고 인식론적 단절로 보기도 어렵다. 중세시대에 축적된 지식은 성 토마스(John of St. Thomas: 1589-1644)나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를 비롯한 17세기 논리학자들에 의해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진 많은 기호 이론들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간지성론』의 저자 로크는 인간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백지상태로 태어나고 언어는 사회적 합의를 근거로 임의적으로 관념과 연결된 기호이며 의미의 문제들로 가득한 사회적 환경에 노출되면서 백지상태가 채워진다고 주장하는데, 의미의 매개체인 기호를 중심에 두는 학문의 목적은 “사회 안에서 기호들의 삶을 연구하는 기호론”을 구상할 때 소쉬르가 의도한 바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4. 품사의 문제

“today”(‘오늘’)의 품사는 무엇인가? 명사(“What’s your today’s special?”인가 부사(“I’m not going to work today.”인가? “your today’s

special”에서는 명사구 핵(head: 가장 중요한 언어성분)의 형태로 주격보어의 역할을, “I’m not going to work today.”에서는 시간을 나타내는 상황보어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느냐 따라 today의 형태는 특정 방식으로 결정되기도 한다. 가령 주격보어자리에서는 소유격 같은 한정사와 함께 쓰일 수 있지만 상황보어의 경우에는 그럴 수 없다. 요지는 today의 의미-통사론적 속성이 언어 사용 맥락에 좌우되며, 따라서 문제는 전통 문법학자들이 선험적 이론(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에 입각해서 단어를 어느 한 범주(품사)에 고정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논리학을 기반으로 언어를 연구하는 문법학자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듯하다. 그들이 문법이라는 이름으로 연구하는 것은 사실 문장이 아니다. 주부와 술부로 구성된 명제의 속성 및 진리값(참/거짓)이 결정되는 조건이다(14세기 오캄에게 논리학은 명제를 통한 개념화 양상을 다루는 학문임을 기억하자). 그래서 전통 문법학자들이 제정한 언어 규칙들에는 언어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과 동떨어져 있는 것들이 많다. today가 그렇다.

언어는 머리속에서 이루어지는 논리적 연산 과정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다. 해당 언어공동체 고유의 역사가 만들어낸 우연의 산물인 경우가 많다. 언어에 비논리적인 것들이 많은 이유가 여기 있다. 가령 프랑스어 음소 /h/는 실제로는 발음되지 않지만 그 음성학적 소리 값은 유기음(aspirated)과 무기음으로 구분된다. 이처럼 존재하지도 않는 소리(무음)가 두 음가(phonetic values)를 가지게 된 이유를 알려면 서로마제국이 멸망한 이후 프랑크족이 오늘날 프랑스 지역(갈리아)을 점령하면서 정복자들의 언어(게르만어)가 피정복자인 갈리아인들의 언어(갈로-로망어 내지 고대 프랑스어)에 편입되는 역사적 배경을 참조해서 그 기능을 살펴야 할 텐데, 프랑스 역사가 만들어낸 우연의 산물(실제로는 발음되지 않는 프랑스어 음소 /h/가 유기음과 무기음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사실)을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다.

5. 『일반언어학강의』는 초판 편집자들이 가공한 책이다

많이 알려져 있듯, 『일반언어학강의』(이하 『강의』로 표기함)는 스위스 주네브 대학에서 소쉬르가 했던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의 필기노트를 토대로 편집된 책이다(사실 그는 자신의 강의를 책으로 낼 생각은 없었다고 한다). 편집본이 대개 그러하듯, 어디까지가 소쉬르의 생각이고 또 어디가 왜곡된 부분인지는 오랫동안 논쟁거리였고 소쉬르 사후 그의 친필본들이 발견됨에 따라 그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필자는 그의 기호 사상을 중심으로 『강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유럽대륙기호학의 연구 방향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건 아마도 『강의』의 마지막 문장, 즉 “언어학의 유일하고도 진정한 연구대상은 랑그 자체이다.” 일 것이다. 예를 들어, 소쉬르의 언어 사상을 언리론(Glossematics)이라는 일반 기호학 이론으로 계승·발전시킨 엘름슬레브는 언어의 내재적, 도식적 속성(형식)을 기호학의 연구대상으로 삼았고, 그레마스는 파리기호학파의 표준 이론을 구상할 때 ‘텍스트를 벗어나면 구원도 없다’를 기치로 내세웠다. 문제는 그 문장이 초판 편집자들에 의해 가공됐으며³⁸⁾, “언어학의 유일하고도 진정한 연구대상은 랑그 자체”라는 문장에 담긴 편집의도는 사실 일반 심리학과와의 관계 속에서 기호론의 학문적 위상을 부여한 소쉬르의 기호 사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데 있다.

20세기 초반 제자들이 스승의 가르침에 ‘근대적’ 편집을 가한 후 랑그 vs 빠를, 공시태 vs 통시태, 기호 vs 지시체 따위의 극단적 이분법이 여전히 의심 없이 수용되는 건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랑그/빠를을 예로 들자면, 말할 때 화자는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말을 하는지, 같은 사람이더라도 대화 장소가 사적 공간인지 공적 공간인지, 혹은 자신이 청자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고려해서 사용할 언어 수준(registers)

38) Calvet. Jean-Louis, *Pour et contre saussure*, Paris, Payot, 1975, p.31.

을 결정한다. 예컨대, 상급자를 직장에서 보는 것과 카테일파티에서 만나는 것은 천양지차고, 친한 사람과 말하는지 아니면 이방인이 대화 상대방인지에 따라 의도가 다르게 전달되며, 지인이라 하더라도 그(그녀)와 어떤 감정(우정, 사랑 혹은 다른 정서 등)을 공유하는지는 말의 형식과 내용에 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요지는 대화 상황, 언어 사용자들(화자, 청자, 방청객 등)의 관계, 장르규칙, 예절 같은 사회적 규범들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빠를 역시 랑그처럼 사회적 현상이라는 사실이다.

랑그/빠를 이분법이 시대착오적이라면, 그리고 ‘랑그 자체를 언어학의 유일하고도 진정한 연구대상’으로 삼는 『강의』 초판 편집자들의 편집 의도가 소쉬르의 강의목표에 역행하는 것이라면, 오류를 바로 잡고 동시에 혁신과 융·복합 지식이 화두가 된 시대에 맞게 기호 연구를 새롭게 디자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호론 논쟁의 역사를 통해 얻은 교훈들을 고려해서 필자는 해석의 견지에서 랑그와 빠를의 중합을 꾀하는 “신소쉬르주의적”³⁹⁾ 연구방법을 제안하는 것으로 본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VII. 과거와의 대화를 통해 어떤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

서두에서 필자는 인문학 전환의 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 시대정신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일조하려면 가추법적 프로토콜을 따라 자기 합리화를 경계하고 반박가능성을 인정해야 하는 한편, 아직 답이 정해지지 않은 문제를 해결할 때 필요한 개념 설계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기호학 연구를 과학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 바 있는데, 가추법적 가설 검증 절차는 다음과 같은 물음들을 토대로 한다:

39) Bouquet, S., “Principes d’une linguistique de l’interprétation: une épistémologie néosaussurienne”, *Langages* 185(1), 2012.

- 1) 연구가설은 무엇인가?
- 2) 관찰대상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 3) 대상을 어떻게 분석할 것이며 왜 그렇게 분석하는가?
- 4) 풀어야할 문제는 무엇인가?
- 5) 연구방법은 시대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가?
- 6) 1-5)를 염두에 두고 분석된 내용을 다른 분석결과들과 어떻게 비교·평가할 것인가?
- 7) 해석된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가설들은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가추법은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동료연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정들을 근거로 현상을 관찰하고, 도출된 패턴들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구축하며, 새로운 경험적 증거들에 부합하지 않는 이론은 수정 혹은 폐기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서두에서 설명했듯 필자에게 가추법적 프로토콜이 필요한 이유는 아직 답이 정해지지 않은 문제를 해결할 때 필요한 개념 설계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연구 패러다임을 새롭게 디자인할 때 비로소 인문학 전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1세기 노동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π 형 인재 양성에 일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1. 연구가설은 무엇인가

필자는 (앞서 민담, 소설, 일상대화, 제스처, 광고, 모바일게임, 영화, 친족체계, 종교제의, 도시 전체 등 ‘텍스트’로 규정된) 기호체계가 특정 맥락에서 나타나는 담화적(discursive) 속성에 주목하고 텍스트 사용자의 인지-지각 활동을 중심에 놓고 세미오시스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따라 신소쉬르주의를 다음 몇 가지 기본 가설을 근간으로 하는 ‘사람의 얼굴을 한 구조주의’로 이해한다:

-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고자 하는 효용성의 원리가 텍스트에도 적용된다(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기호체계인 언어의 ‘경제성’은 구조주의 언어학이 밝힌 중요한 구조적 조직 원리 중 하나다),

- 텍스트로 소통할 때 사람들은 제한된 단서들(명제, 전제, 함의, 맥락 적절성 등)을 토대로 결론(들)을 유출하거나 논박한다(퍼스 기호학의 중심에는 연역법, 귀납법, 가추법 등 추론 과정이 있다),

- 효용성의 원리와 추론 과정은 텍스트, 사용자(집단), (사용 환경 및 진화 패턴으로서의) 기호계가 끊임없이 서로에게 적응하는 구조적 상호작용의 역사를 배경으로 작동한다(장/단기 기억 같은 제한된 인지력이 직간접적으로 기호 생산이나 해석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준 건 인지과학이 거둔 성과 중 하나다),

- 텍스트를 구조화하는 원리 한 복판에는 인지적 무의식 내지 신체화된(embodied) 마음⁴⁰⁾이 작동한다(육체와 의식을 위계적 서열관계로 파악하는 데카르트 식 이분법 및 자기동일성 기반 주체철학 비판 그리고 대안으로 떠오른 생성(becoming)에 대한 통합적 사유는 오늘날 지적 지형을 특징짓는 변별적 속성들이다).

2. 관찰대상을 어떻게 규정하고 분석할 것인가

이런 가설들을 근거로 필자는 랑그/빠를/언어활동을 다음처럼 재규정한다. 랑그는 (음성신호와 정보로 이루어진) 기호들과 기호들 사이의 관계(통합체와 연합체)를 만들 때 필요한 원리들로 이루어진 추상적 코드(들)이고, 빠를은 (무)의식적 동기들에 영향을 받는 동시에 “사회-문화적으로 매개된 행위능력”⁴¹⁾을 보유한 행위자들(agencies)이 코드를 변용해

40) Lakoff, G. and Johnson, M., *Philosophy In The Flesh: the Embodied Mind and its Challenge to Western Thought*, Basic Books, 1999.

41) Ahearn, L. M., “Language and Agency”,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30, 2001, p.112.

구체적인 메시지를 생산하고 해석하는 언어행위이다. 그리고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되어 있으며 사회화 과정을 통해 온전히 발현되는) 언어활동은 집단 언어 사용자의 신체화된 마음속에서 코드와 메시지들이 역동적으로 변형, 재구성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상호작용하려면 행위자들은 (인류 공통의 소통능력인) 언어활동을 (랑그의 개별적 변용 양상인) 빠롤의 형태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자면 (문화적 학습을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는) 해당 언어 공동체 고유의 약호체계를 알아야 한다는 점에서 랑그/빠롤/언어활동은 해석학적(hermeneutic) 순환으로 연결되어 있다. 해석학적 순환이란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⁴²⁾을 기본 전략으로 취해 개인과 집단, 체계와 체계 외부, 공시적 정태성과 통시적 역동성을 관통하면서 부분(빠롤)들의 합 이상으로서의 전체 집합(랑그 내지 언어활동)을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을 뜻한다. “부분은 전체를 위해 그리고 전체를 수단으로 존재하고, 전체는 부분을 위해 그리고 부분을 수단으로 존재한다.”는 칸트의 말을 약간 패러디하면, 빠롤은 랑그를 위해 그리고 랑그를 수단으로 존재하고 랑그는 빠롤을 위해 그리고 빠롤을 수단으로 존재한다. (‘부분과 전체의 변증법’이라 부를 수 있는 전략에 따라 텍스트를 이해하려면 언어학, 사회학, 인류학, 역사학, 빅데이터 분석, 인지과학 등 인접 학문들과의 협업이 필수적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3. 풀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앞서 언급했듯, 푸코는 담론의 구조와 함께 담론 외부에서 그 내적 구조를 결정하는 (사회-문화적, 역사적) 외부 조건들을 고려해서 주체화의 문제를 다루며, 라캉은 무의식(실제), 의식(상상계), 랑그(상징계)가 상호작용하는 양상을 근거로 정체성 형성 과정을 탐구한다. 텍스트를 어떻게

42) 홍종열, 『유럽연합(EU)의 문화산업과 문화정책: 세계화시대의 글로컬 비전』,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2.

분석하고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는 사실 해석자의 정체성과도 무관하지 않다. 현상학적 해석학을 전개하는 리코르⁴³⁾의 말을 빌리자면, 인간은 해석을 통해 타자와 세상(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함으로써 ‘서사적 정체성’(ipse)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필자는 “사람의 얼굴을 한 구조주의”를 지향하는 신소쉬르주의적 담화 기호학이 풀어야 할 우선 과제로 텍스트 이해와 정체성의 관계와 결부된 문제들을 상정한다.

인식론적 관점에서 보면 글로컬라이제이션 기반 해석학은 “자본주의에 내재한 모순이 노동력 및 생산관계뿐 아니라 정치, 제도, 종교, 미학 등 여타 역사·문화적 국면들의 복합작용으로 발생한다”⁴⁴⁾는 알튀세르(Louis Althusser)의 “중층결정”(surdétermination) 개념이나 혹은 “집단 내 개체들의 상호작용(경쟁과 협동)과 집단 간 상호작용을 통해 생명체가 진화한다”⁴⁵⁾는 현대 진화론자들의 다수준 선택론에 견줄 수 있다. 텍스트 분석 시에도 중층결정이나 다수준 선택 개념이 필요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랑그와 빠롤이 언어활동으로 재편성되면서 (공시적으로는) 부분들이 상호의존적인 기호체계를 구성하는 동시에 (통시적으로는) 체계를 구조화하는 방식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체계의 안과 밖, 공시적 정체성과 통시적 역동성이 서로에게 적응해감으로써 언어가 “자기 자신으로 남아 있는 동시에 변화·발전”⁴⁶⁾하는 해석학적 순환 메커니즘을 밝히는 일이야말로 신소쉬르주의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하는 연구자가 풀어야 할 또 다른 근본 문제이다.

43) Ricoeur, P., *Temps et récits III, Le temps raconté*, Seuil, 1985.

44) 윤성노, 「정의의 관점에서 문화연구자는 문화시장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기호학 연구』 43, 한국기호학회, 2015, 164쪽.

45) 윤성노, 『양손잡이 루시 -언어와 문화는 어떻게 공진화했는가?』, 한국문화사, 2016, 321쪽.

46) 유리 로트만: 최용호, 「기호사각형의 미결 문제와 그 문화기호학적 함의」, 『기호학연구』 44, 한국기호학회, 2015, 326쪽에 재인용.

VIII. 나가기

플라톤 이후 언어와 세상의 관계에 대한 입장은 크게 실재론, 계약론, 절충론으로 나뉘며, 아리스토텔레스와 스토아학파는 규약적 기호와 자연적 기호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특히 단어를 “영혼의 영향이나 감동에 대한 기호”로 규정하며 심적 개념이 기호의 대상을 반영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의미론은 기호학사에 중요한 전환점이다. 중세에는 보에티우스가 기호, 개념, 사물 사이에 존재론적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중세 철학적 의미론 발전에 기여하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스토아학과 자연주의적 기호사상을 비판하고 규약성과 소통기능을 중시하는 언어철학을 전개한다. 13세기 중반에는 유사성의 에피스테메를 토대로 개념이 사물을 대신 하던 관점이 쇠퇴하고 표상어로의 인식론적 전환이 일어난다. 논리학과 인식론이 밀접하게 연관되는 중세 말기에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기호다’를 모토로 의미와 표상의 관계에 대한 열린 토론의 장이 마련되고, 문자가 음성언어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자적 표상체계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한편, “의미론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보편적 표상주의(아리스토텔레스), 기호 추론(내포)을 통해 의미의 원천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자연주의 언어철학(스토아학파), 사유 자체를 기호현상으로 간주하는 심리주의 논리학(오캄), 그리고 표상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의 문제를 다루는 인식론적 기호 연구(메이저)를 종합해보자. 그렇다면 표상체, 해석소, 대상 사이에 형성되는 삼자적 관계야말로 진정한 기호현상이며 삼자성의 핵심인 해석소를 통해 표상체가 대상과 연결되는 세미오시스 과정이 원리상 무한대로 반복된다는 퍼스의 관계논리학(기호학)과 조우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쉬르가 일반 심리학과와의 관계 속에서 구상했던) 기호론을 대상으로 제자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편집을 가한 후 후학들이 한 동안 세미오시스 연구에서 맥락(주체, 환경, 시간성 등)을 배제하고 텍스트

트의 내재성에 전착하는 ‘너무 강한’ 구조 개념을 무리하게 방어한 건 애석한 일이며, 이런 구조적 연구방법이 (소쉬르의 의도와는 반대로) ‘사회적 삶에서 기호의 삶’을 단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인식하고 필자가 인문학 패러다임 전환의 일환으로 (해석의 견지에서 랑그/빠롤/언어 활동을 가로지르는 담화를 주목하는) 신소쉬르주의에로의 회귀를 역설한다는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참고문헌

- 윤성노, 『양손잡이 루시 -언어와 문화는 어떻게 공진화했는가?』, 한국문화사, 2016.
- _____, 「정의의 관점에서 문화연구자는 문화시장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기호학 연구』43, 한국기호학회, 2015, 150~191쪽.
- _____, 「국판의 의미 생성 및 주술치료에 대한 기호-인식론적 소고」, 『인문논총』 67, 서울대학교, 2012, 115~147쪽.
- 이상범, 「니체의 섭생에 대한 연구-영양(혹은 영양섭취)의 사상적 의미에 대한 고찰」, 『범한철학』 83집, 범한철학회, 2016 겨울호, 75~111쪽.
- 임지룡, 『의미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한국문화사, 2008.
- 최용호, 「기호사각형의 미결 문제와 그 문화기호학적 함의」, 『기호학연구』 44, 한국기호학회, 2015, 311~336쪽.
- 홍종열, 『유럽연합(EU)의 문화산업과 문화정책: 세계화시대의 글로벌 비전』,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2.
- 루트비히 폰 미제스 지음, 박종운 옮김, 『과학이론과 역사학』, 서울: 지식올만드는 지식, 2015(1957).
- Dirk Geeraerts 지음, 임지룡 · 김동환 옮김, 『어휘의미론의 연구 방법 -역사의미론에서 인지의미론까지-』, 경북대학교출판부, 2013.
- E. H. 카 지음, 김택현 옮김, 『역사란 무엇인가』, 서울: 까치, 1997.
- Evans N., Green M. 지음, 임지룡 · 김동환 옮김, 『인지언어학 기초』, 한국문화사, 2008.
- Lotman, Y. M. 지음, 유재천 옮김, 『문화 기호학』, 문예출판사, 1998.
- Ronald W. Langacker 지음, 나익주 옮김, 『개념, 영상, 상징』, 도서출판 박이정, 2002.
- Abelard, P., *Dialectica*(de Rijk, L. M.[ed.]), Assen: Van Gorcum, 1956.
- Ahearn, L. M., “Language and Agency”,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30, 2001.
- Aristotle, *De Interpretatione*, Leob Classical Library, London, 1938.
- Augustine, *De dialectica* (Jan Pinborg[ed.], translation with introd. and notes by B. Darrel Jackson), Dordrecht: Reidel, 1975.
- _____, *De doctrina christiana in Sancti Augustini Opera* (Green W. M.[ed.], CSEL 80, Vienna, 1963.
- Bacon, R. *On Signs, Translated with Introduction and Notes*(Maloney, T. S.[eds.]),

- Mediaeval Sources in Translation, No. 54, Toronto: Pontifical Institute of Mediaeval Studies, 2013(1267).
- _____, *Compendium of the Study of Theology: Edition and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Notes*(Maloney, T. S.[eds.]), Studien und Texte zur Geistesgeschichte des Mittelalters, No. 20, Leiden: E.J. Brill, 1988(1292).
- Barthes, R., *Mythologies*, Seuil, 1957.
- Baudrillard, J., *Simulacres et simulation*, Galilée, 1981.
- Bouquet, S., “Principes d’une linguistique de l’interprétation: une épistémologie néosaussurienne”, *Langages* 185(1), 2012.
- Calvet. Jean-Louis, *Pour et contre saussure*, Paris, Payot, 1975.
- Chomsky, N., *The Essential Chomsky* (edited by Arnove A.), New York: New Press, 2008.
- Derrida, J., *De la grammatologie*, Les Éditions de Minuit., 1967.
- _____, *L’Écriture et la différence*, Seuil, 1967.
- Diogenes Laertios, *Vitae philosophorum*, VII, 159.
- Foucault, M., *L’Ordre du discours*, Gallimard, 1971.
- _____, *Les Mots et les Choses. Une archéologie des sciences humaines*, Gallimard, 1966.
- Jakobson, R., “Closing Statements: Linguistics and Poetics” In Thomas A. Sebeok(ed.), *Style In Language*, Cambridge Massachusetts: MIT Press, 1960.
- Kretzmann, N. J., Maienborn, C., von Heusinger K., Portner, P.(eds.), *Semantics: An international Handbook of Natural Language Meaning* Volume 1, Walter de Gruyter, 2011.
- Lacan, J., *Écrits*, Seuil, 1966.
- Lakoff, G. and Johnson, M., *Philosophy In The Flesh: the Embodied Mind and its Challenge to Western Thought*, Basic Books, 1999.
- Magee, J., *On signification and mind*, Leiden: Brill, 1989.
- Major, J., *Libri quos in artibus in collegio Montis Acuti Parisius regentando compilavit*, Paris 1506.
- Martinet, J., *Clefs pour la Sémiologie*, Seghers., 1973.
- Nöth, W., *Handbook of Semiotics*, Indiana University Press, 1995.
- Ogden. C. K. and Richards, I. A., *The Meaning of Meaning: A Study of the Influence of Language upon Thought and of the Science of Symbolism*, Magdalene College, University of Cambridge, 1923.

- Pinker, S., Bloom, P., “Natural Language and Natural Selection”,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13, 1990.
- Popper, K., *Conjectures and Refutations: The Growth of Scientific Knowledge*, Harper and Row, Wokingham, England, 1963.
- Ricoeur, P., *Temps et récits III, Le temps raconté*, Seuil, 1985.
- Saussure, F. de,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édition critique par Tullio de Mauro], Paris, Payot, 1972.
- _____,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Ballt C., Sechhayé, in coll with Riedlinger (Baskin W. [tran.], The Philosophical Library, Inc, New York, 1959(1916).
- Warner, R., *The Confessions of St. Augustine*, New York: Penguin Books, 1963.

Critical review of the occidental history of semiotic thoughts and preliminaries to a neo-saussurian research

Youn, Sung-No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look at semiotic debates drawing upon the history of occidental thoughts from Plato to Saussure. We begin putting into examination *Cratylus* in order to compare three positions on relation between name and thing, realism of *Cratylus*, Hermogenes's conventionism, and Plato's eclecticism. Next theme of discussion concerns *De Interpretatione*, "the most influential text in the history of semantics", where Aristotle defines word as sign. In parallel it is necessary for us to show the way the Stoic school contemplates on inference based on signs. Before going to the Middle Ages we think it relevant to compare the theories of sign of the Ancient Greek and Saussure's one. This is the first part of our research. Its second part comprises semiotic thoughts in the periods of the Middle Ages. First we take account of S. A. Augustinus and A. M. S. Boethius's writings and talk about modist grammarians establishing relationship among object, concept, sign. The focus is then given upon the middle of thirteenth century where an epistemological change of semiotic nature takes place. Next William of Ockham and John Major appear on the fore scene when it comes to show how logics and epistemology become more intimately related each other at the end of medieval times. Finally we review critically five problems(Aristotle's 'universalist position on linguistic concept, philosophy of language by Augustinus, eight parts of speech by Thrax, Foucault's historical division based on epistemic analysis, Saussure's semiology) in order to propose a semiotic methodology of 'neo-saussurian' nature.

Keywords : abduction, nominalism, semiology, interpretation, post-structuralism, embodiment

투고일 : 2017. 02. 04. / 심사일 : 2017. 02. 27. / 심사완료일 : 2017. 03. 05.